

팔순의 노승이 법보시하는 이유는?



용성진중 조사의 생애와 사상 조명
도문 스님 <연기법 생활> 전국 법보시

“80을 바라보는 노승이 8만대장경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찌하여 조용히 쉬지 않고 활야실 수야실인 <연기법의 생활>을 간행해 유포하겠습니까. 한국불교 근현대 고승인 용성진중 조사의 삶과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인들이 연기법의 도리를 이해하고 삶의 지혜로 삼도록 하고 싶습니다.”

죽림정사 조실이자, 조계종 원로회의 원로의원인 도문 스님(사진은 스승인 용성진중 조사의 삶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발자취를 더듬었다. <연기법의 생활>은 용성진중 조사의 생애와 사상을 담고 있다. 도문 스님은 1946년 용성진중 조사의 수법 제자인 동현완규 조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은 한국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불교와 한국불교의 원용화합을 명분 삼아 정치적·종교적으로 한국의 정신문화 해체를 시도했다. 당시 ‘조선 왕조 마지막 대강백’이라 불리던 이회광 초차도, 1908년 전국사찰대표 60여명을 모아 일본 정토종을 표방한 원종(圓宗)을 창립해 친일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일본 정토종은 양산 통도사를 자신들의 종단 말사로 삼으려는 야심을 품었다. 일본 조동종은 조선불교를 일본 조동종 종단에 병합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며, 일본 일제중이 조선 일제종과 한 근원이라 주장하는 등 동일불교 단합관행을 꾀했다.

결국 범어사와 통도사는 연합해 서울 인사동에 조선불교 일제종 선종교당을 설립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때 용성진중 조사가 개교사장(開教師長)으로 등단했다. 스님은 범어사 성철, 만해스님 등과 일제종 운동에 앞장섰다. 이어 1911년 서울 종로에 대각사를 창건하고, 3·1운동(1919)에는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를 대표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스님은 이일로 1

년 6개월간 옥고를 치러야만 했다. 일생을 독립운동과 불법포교에 이바지했던 용성진중 조사는 수법제자인 동현완규 조사에 유훈10사목(遺訓十事目)을 부속하고, 불자들에게 5대 수행을 권했다. 용성진중 조사는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승려로서의 본연의 모습도 잃지 않았다. 불심도문 대종사는 1983년 동현완규 조사가 열반하면서 용성 조사의 유훈 10가지를 실현하는데 전력해왔다.

유훈 10사목은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불교의 조진법론 폐허성지를 잘 가꾸는 것을 비롯해, 부처님이 탄생하신 네팔 톱비니원, 불타 불적 5대 성지를 가꾸도록 하는 것이었다. 특히 연기화엄부, 소승아함부, 대승방등부, 공해반야부, 실상법화부, 원적열반부인 6부의 한문경전을 한글로 번역해 대중에게 지혜의 안목으로 삼도록 했다. 또한 참선, 염불, 간경, 주력, 불사의 5대 수행을 강조하며, 이 수행이 갖는 의미와 방법론에 대해서도 전했다.

도문 스님은 “은 인류가 5계(五戒)를 받들어 십선수행(十善修行)하고, 사성



제, 팔정도, 십이연기를 알아 심바라밀을 행함으로써 성불인연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계각종의 지도자들이 불타의 가르침과 조사의 교훈을 받아들여 높은 이상과 넓은 배움, 깊은 깨달음으로 종교본질의 씨앗을 소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문 스님은 <연기법의 생활>을 전국의 각 사찰과, 이웃종교, 지방자치단체 등에 법보시할 예정이다.

불심도문 대종사 지음 | 죽림정사 (063) 353-0108 이은정 기자

윤남진 리뷰 / 마음의 기원



데이비드 버스 지음 | 나노미디어

케이블 TV프로그램 중 ‘남녀탐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상황이나 과제들을 두고 매우 다르게 반응하는 행동과 모습을 그려낸다. 즉,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고백하게 말한다. 이런 성차를 드러내는 가장 일반적인 예는 아마도 자동차 운전일 것이다. 남성들은 운전면허를 따기도 전에 카레이서처럼 구는 반면, 여성들은 도로주행과 주차에서 찢찢매매는 모습은 극적 수준이다. 반대로 남성은 그렇지 못하지만 여성들은 어지러이 날려져 있는 차고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보관해 둔 물건들까지 귀신같이 찾아낸다. 과연 이런 성차는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아마도 첫 영장류가 진화한 것으로 보이는 8500만 년 전, 또는 두 다리로 걷는 첫 영장류가 등장한 44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도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렇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심리학과 진화생물학을 통합한 혁명적인 신과학이라는 진화심리학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또, 인류의 진화 역사는 대부분 석기시대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유전적 형질과 마음의 결정규칙들은 석기시대의 인간 삶과 그 환경조건들에 맞게 조형된 것들이 지배하고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이 책의 원 제목은 ‘진화심리학’이다. 이 말이 시사하듯 책의 서두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1859)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화심리학’ 통해 성차의 유래 살펴 인간 마음의 연원은 일정한 규칙 지녀

시작한다. <종의 기원>에서 “언젠가 정말로 중요한 연구를 위한 영역이 열릴 것으로 본다. 심리학은 새로운 기반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이 바로 ‘진화심리학’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화론의 핵심개념인 ‘자연 선택 및 성 선택설’로부터 오늘날의 유기체가 수백 또는 수백만 세대에 걸친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전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은 이타주의 문제, 즉 ‘어떻게 이타주의가 진화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없다. 이에 대한 진화 생물학의 혁신은 1960년대 초 ‘포괄적 적응도 이론’으로 해답을 얻게 된다. 포괄적 적응도란 개별적 번식 성공의 합(고전적 적응도)에, 개인 활동 혹은 유전적 친족들의 번식 성공이 미치는 효과를 더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유전적 관련성이 적은, 거리가 먼 친족에 비해 가까운 친족에게 이타적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가설을 ‘포괄적 적응도 이론’에 기초해 세울 수 있다. 이로써 자신의 생존과 직접 번식을 위한 적응적 행동 이외에 이타주의적 행동이 진화 가능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발전시키는 학문적 혁신이 이뤄진다.

본문 중 ‘여성은 지위가 높은 남성을 선호하거나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진화했다’는 한 가지 예측이 있다. 이 예측의 배경이 되는 상위의 가설은 ‘수컷이 자손을 위한 자원 제공자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암컷이 수컷의 자원제공 능력에 기초해서 짝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점이다. 이 가설의 상위에 중간 수준의 진화이론인 ‘양육투자이론과 성 선택설’이 있

고, 최상위에 일반 진화이론인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포괄적 적응도 이론)’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의 다양한 마음의 결정규칙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설명한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처럼 적나라하게 생존과 번식을 위한 적응 행동에 기초해 설명한다는 것에 대해 필자가 그랬지만 독자들도 다소 꺼림칙스런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처럼 적나라하게 우리 마음의 연원과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마음의 규칙들에 대해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시 종족이나 문명화된 도시인이나 모든 현존 인간이 같은 마음의 연원과 유사한 결정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이해하고, 그런 이해에 기반해 왜 우리가 서로를 이성적이고 이타적으로 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진화시켜 가야 하는지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혹시 우리 마음의 탐·진·치의 오래된 연원과 그것에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힌트를 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불교적 해석 통해 문학치료까지 응용

‘구운몽’은 인생의 가치를 발견케 하는 소설



<구운몽>에서 보여주는 꿈과 환상, 가상이 불법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됐다. <구운몽의 불교적 해석과 문학치료교육>은 <구운몽>을 불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학치료와 문학교육에 응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1부는 ‘구운몽의 사법실현과 환생의 의미’ ‘구운몽의 세속 삶과 그 극복 방식’ ‘김만중의 시문에 나타난 구름’ ‘구운몽의 구름과 주제’ ‘구운몽의 환몽(幻夢)경험과 주제’ 등을 다루면서 불교적 해석으로 접근하고 있다.

2부는 1부에서 다룬 <구운몽>에 대한 불교적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운몽>을 우울증 치료 텍스트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한다. ‘구운몽의 우울증 치료 텍스트로서의 가치’ ‘구운몽의 재해석과 희망의 서사 교육’ 등을 다루며

<구운몽>의 문학치료와 문학교육을 담았다. 책은 교육현장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구운몽>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운몽>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하고 있다.

<구운몽>의 암시는 학습자로 하여금 세속 삶에서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양소유의 일생은 옳고 그름의 상대적 분별을 넘어 정당함, 높고 낮음의 상대적 분별을 넘어선 형제애 혹은 동생애 등을 구성해 보여준다. 양소유의 일생은 역설적으로 위대한 평등 세계를 보여주며, 말년의 양소유가 모두가 선망하는 이상적 현실에 머물지 않고 해방과 깨달음의 경지를 추구한다.

저자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구운몽>을 읽고 또 가르친다면, <구운몽>은 우리 인생에서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인생을 예찬하는 소설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강욱 지음 | 소명출판 | 2만 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행복, 비움으로 얻기 처음으로 얻는가	미산 외	운주사
4	생각 버리기 연습	코이케 류노스케	21세기북스
5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6	초기불교이해	각목	초기불전연구원
7	인과경	현담	선
8	선가귀감	원소 역해	법공당
9	허공법문	김기추	고려원북스
10	노자 도덕경, 그 선의 향기	김산	정우서적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天氣福

화제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탈로이드판 257×364 / 536쪽 /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 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 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입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